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4월 27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 동참, 본부를 홍보하고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과 만났다. 사진은 이사장 일면 스님이 '나만의 희망 연꽃등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일면 스님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생명의 가치와 실천의 소중함을 알렸다.



'절로 되는 기부 108배 챌린지' 코너에서는 수행과 기부문화를 동시에 체험하고자 하는 MZ세대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색 연등 아래 '생명의 빛' 밝히다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4.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여 앞둔 4월 27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음악들로 떠들썩했다. 전날 연등행렬에 이어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이 열린 것. 수천 개의 연등이 거리를 수놓았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이 가능한 130여 개의 부스에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온기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다. 그 가운데 유독 묵직한 울림과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부스가 있었다. 바로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의 홍보 공간.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자비행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이 부스는 단지 홍보를 위한 공간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라는 이념 아래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불교계 대표 기관이다. 이들은 올해 전통문화마당에서 '생명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슬로건 아래 작은 불빛이 모이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부스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날 부스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물론 생명존중 메시지를 담은 불교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나만의 희망연꽃등 만들기' '소원 담은 꽃반지 만들기' '절로 되는 기부 108배 챌린지' 등이 그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은 아이들의 웃음과 어르신들의 진중한 시선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특히 '절로 되는 기부 108배 챌린지'는 젊은 층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수행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챌린지는 올해 조계종 사회부가 지원하는 '2025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한 후 #108배 챌린지 해시태그가 붙은 인증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리면 1만원이 자립지원청년 치료비로 기부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이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이사장 일면 스님의 헌신적인 현장 활동이었다. 스님은 이날 종일 부스를 지키며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의미를 차분히 설명하고 실천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다.

스님은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꽃등과 꽃반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부스에는 이날 약 6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생명나눔, 4월 27일 우정국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실시
일면 스님, 시민들에 직접 홍보
기부 108배 챌린지 MZ에 인기



이날 주변 부스를 돌아보기도 한 일면 스님은 한마음선원이 마련한 어린이잡지 '마음꽃' 부스를 찾아 꽃모양 바람개비를 만들며 축제를 함께 즐겼다.

"장기기증이 무섭다"는 한 시민의 말에 일면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생명은 두려움보다 더 크고 소중하며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잇는 희망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처음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망설이던 시민들은 스님의 정성 어린 설명을 듣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20대 대학생 커플은 나란히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생명이라는 가치라 얼마나 큰지 느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윤재 씨도 "죽음이 무섭기만 했는데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끝에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에도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생각에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이 죽음 이후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가장 적극적인 자비행임을 강조하며 "희망등록은 생명이라는 등을 마음에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연등을 밝히는 이유도 결국 다른 생명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며 "장기기증은 그 자비심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간이식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설명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일면 스님은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간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생명나눔의 장본인이다.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에 후원자들의 자비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면서 "삶의 끝자락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 또 소외계층에 내민 자비의 손길은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자는 100여 명. 지난해 120여 명에 비해 줄긴 했지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더 큰 수확이다.

최상균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희망등록 신청자 확대 기저에는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데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본부사업을 홍보하고 한국 불교문화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회 곳곳에 알리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6월 6일 오전 10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 천도재'를 개최하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6월 9일에는 캄보디아 씨엠립주에 방문해 지역주민에게 의료물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2차 : 1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